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례

-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 -

박경호
성북구청 기획재정국장
dragon@sb.go.kr

지역특성

성북구는 서울 성곽과 성북천·정릉천의 풍부한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보급 유·무형 문화재와 8개 대학이 소재한 역사·문화·교육 중심도시이며, 서울 도심과 동북 지역을 잇는 전략축 상에 입지한 중심도시로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발전도시입니다.

- 성북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변변한 상업 지역조차 없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발전이 뒤쳐져 있었으나, 구정목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NEW)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2010 성북비전」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도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아름다운 녹색도시 ▲정감 있는 복지도시 ▲품격 있는 역사·문화·교육·경제 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완성하는데 주력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길음·월곡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지역개발사업, 성북천·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낙산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도시 성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젊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건강도시 프로젝트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중인 성북천·정릉천 복원사업, 환경친화적인 길음·장위 뉴타운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우이·정릉·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사업과, 왕십리~중계동간 동북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 성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림 2] 길음·월곡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비상경제대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성북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비상경제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는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60주년 기념 행사비와 해외연수 경비를 포함한 경상비 절감액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반납금,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등으로 마련한 25억 5천2백만원을 포함한 98억5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9개분야 4,12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잡셰어링(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5억원 전액 등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다.

○ 주요 추진사항

- 인센티브 사업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살리기 재원에 투입
 - 2008 예산절감 인센티브, 동 통합우수구 인센티브,
 - 조기집행 우수구 인센티브(500백만원)
- 신청사 집기 구입예산 등 경상비 절약
- 행사경비,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
- 급여반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 공직자 자발적으로 납부

○ 추진실적 : 4개 분야 2,953명 2,052백만원

- 인센티브 사업비 일자리 창출
 - 2008 예산절감 인센티브 : 저소득 공공근로 확대(150명 317백만원),
 - 2008 동 통합우수구 인센티브 : 대학생아르바이트 채용확대(70명 56백만원)
- 비상경제대책 실적평가 우수구 인센티브 : 500명 500백만원
 - 기업지원(209백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291백만원)
- 각종행사경비의 절감 등 집기 구입예산 등 경상비 절약 : 1,000명 1,000백만원

- 사회적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복지분야 등 투입)
 - 급여반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 21명 21백만원
 - 희망일자리 창출펀드 조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 활용
-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절감 : 행정인턴 12명 채용(158백만원)
- ※ 향후 추가발생 인센티브 사업비, 불요불급 예산 절감액 전액 투입

② 임시청사 성북구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센터 활용

신청사 완공과 더불어 철거하기로 한 임시청사를 금년말까지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 취업박람회장, 공동작업장, 취업강좌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청사현황 : 지상3층 총면적 7,323㎡
- 활용용도 : 층별 이용
 - 1층 :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 인력시장, 취업박람회장 등
 - 2층,3층 : 공동작업장 및 창고 30여개 설치 경영사업지도 상담실 개설·운영
소자본 창업교육 및 상담을 진행, 취업강좌 개설
- 추진실적 : 33개 업소 고용창출 입주후 운영(2009.07. 현재)
- ※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 임시청사를 올해말까지 고용창출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형 업체 1곳이 맡아온 이사를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나눠 의뢰(이사비용 1억 9,000만원 관내 중소 이사 업체 선정 후 지급)



[그림 3]성북 일자리센터 사진(구:임시청사)

③ 복지포인트 기부 나눔분위기 조성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 공직자가 나눔과 봉사활동 전개하고 이웃과 서민에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구정 구현

- 추진방법
 - 선택적 복지포인트 활용한 기부
 - 희망돼지 저금통 기르기를 통한 모금활동 전개 희망돼지 저금통 각 부서 배부
- 추진실적 : 49,000,000원 모금(2009.06.30현재)

④ 성과상여금 자진 반납

- 추진방법
 - 공무원(5,6급) 개인 성과상여금 10% 자진반납을 통한 재원마련
 - 「희망일자리 창출펀드」 조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비 활용
- 추진실적 : 48백만원 모금(2009.06.30현재)

⑤ 영세중소기업 용자지원

- 추진방법
 - 중소기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 소자본 창업강좌 실시
 - 고용안정 취업정보 은행 지원 등
- 추진실적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77개업체 45억9천6백만원 지원
 - 고용안정 취업정보 은행 운영 : 125개업체 500명 취업
 -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운영 : 3개시장 67,150천원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건과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킴이 일자리 창출

우리구의 금연·금주 사업은 전국 최초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을 통하여 금연·금주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을 포함한 21개 공원을 “금연·금주 청정공원” 으로 지정 선포하였다.

이러한 우리구 시책사업인 금연·절주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금연·금주청정공원 지킴이를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 58명을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교대로 배치하여 흡연·음주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발생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일터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건과 복지의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격려서한을 받기도 하였다.

향후 발전방향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의 전 지역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성북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을 완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고품격의 환경디자인 도시, 사람보행 중심의 친환경 뉴타운 도시, 모든 주민이 건강한 건강도시,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도시로 대표되는 미래의 일류도시로 거듭 태어나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의 선도적 중심축으로 꿈과 행복이 넘치는 최고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들의 상호 상관관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을 극복할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